

관계회복을 위한 영성훈련

“관계회복반”

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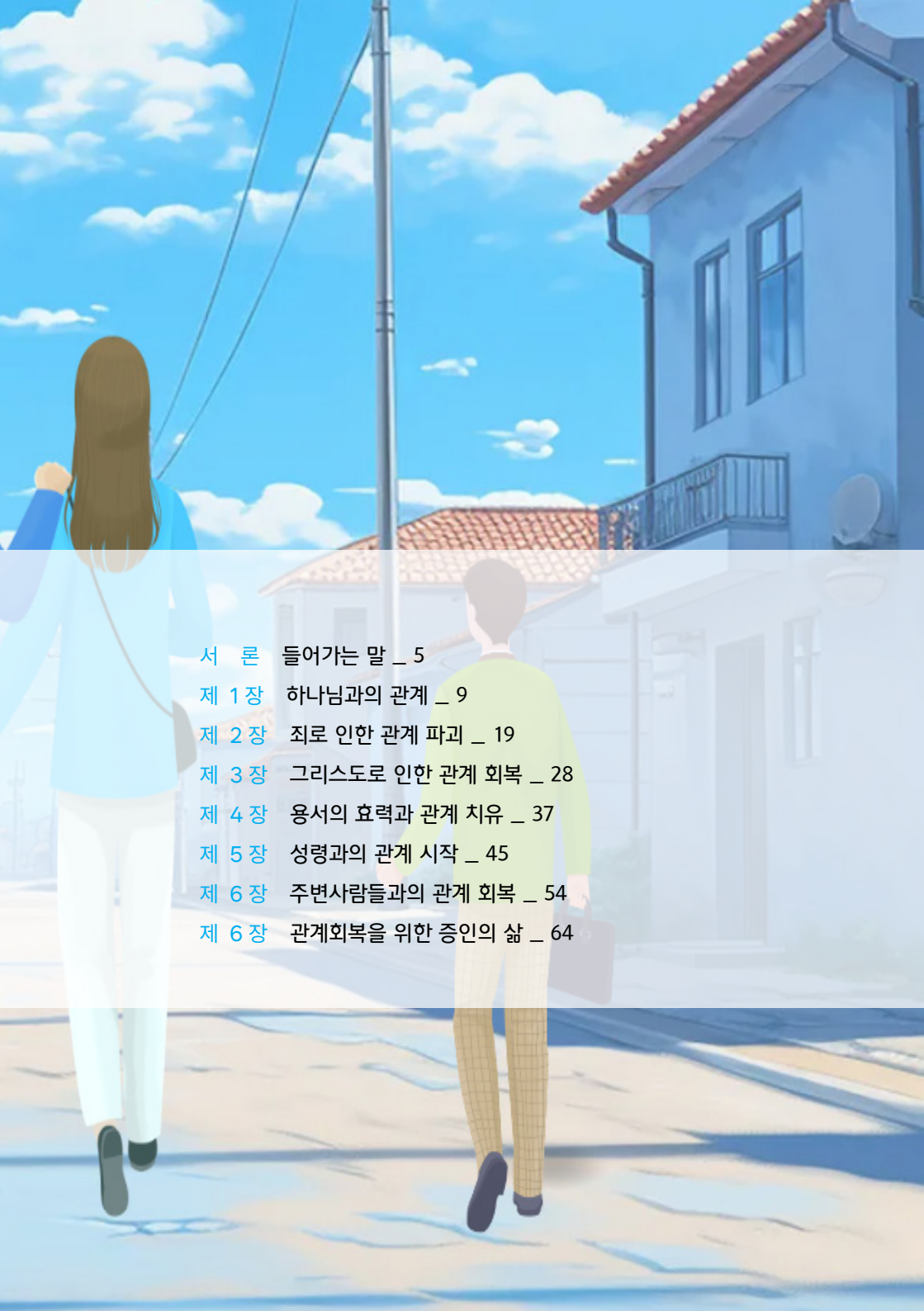
* 이 교재는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에 소속된 교회에서 성경공부/훈련을 위해 제작된 교재입니다. 교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은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에 가입하시고 최우수회원이 되셔야 합니다.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목차 CONTENTS





서 론	들어가는 말 _ 5
제 1 장	하나님과의 관계 _ 9
제 2 장	죄로 인한 관계 파괴 _ 19
제 3 장	그리스도로 인한 관계 회복 _ 28
제 4 장	용서의 효력과 관계 치유 _ 37
제 5 장	성령과의 관계 시작 _ 45
제 6 장	주변사람들과의 관계 회복 _ 54
제 6 장	관계회복을 위한 증인의 삶 _ 64



서론

/

들어가는 말

관계 치유 영성 훈련: 관계의 회복, 그 아름다운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32)

인생은 한마디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시작하여, 성장하며 친구, 배우자, 동료 등 수많은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소중한 관계들은 종종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동시에, 가장 깊은 상처와 고통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관계의 불통과 갈등으로 괴로워하며, 사람을 피하거나 마음의 문을 닫아걸고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나는 왜 늘 사람에게 상처받을까?"라는 끝없는 질문을 던지며 심리학 서적을 탐독하거나 대화의 기술을 배워보기도 하지만, 우리 영혼 깊은 곳의 갈망과 깨어진 관계의 본질적인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관계의 문제가 단순히 성격의 차이나 소통 기술의 부족이 아니라, 인류의 시초부터 발생한 근원적인 '영적 질병'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했을 때, 비로소 인간 사이의 관계도 비틀리고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진단합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가 잎사귀를 피울 수 없듯이, 하나님과의 수직적 연합이

깨어진 상태에서는 사람 사이의 수평적 연합 또한 온전할 수 없습니다.

본 훈련 교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관계의 문제를 단순한 처세술이 아닌 '구속사적 관점'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는 총 7장에 걸친 여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진리에 다가갈 것입니다.

(1) 관계의 원형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어떤 존재로 설계하셨는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성한 사귄 속에서 그 해답을 찾을 것입니다.

(2) 죄의 파괴력을 직시합니다. 죄가 어떻게 우리의 관계 속에 두려움과 수치심, 그리고 '강포'의 원리를 가져왔는지 정직하게 대면할 것입니다.

(3)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이, 어떻게 우리 관계 회복의 유일한 토대가 되는지 배울 것입니다.

(4) 성령 안에서 걷습니다. 용서와 용납, 그리고 덕을 세우는 언어의 훈련을 통해 실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일구어 가는 실천을 할 것입니다.

이 훈련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다시 발견하는 시선의 변화이며, 나를 먼저 용납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타인을 받아들이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관계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혹은 갈등의 끝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이 교재의 첫 페이지를 여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여정을 마칠 때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공동체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흐르고, 깨어진 담이 허물어지는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성한 초청인 '사림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시다.

2026년 1월
데이빗리 목사





1 장

/

하나님과 관계

제 1 장 하나님과의 관계

도입내용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의 문제로 아파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할까?", "왜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로울까?" 이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뱉습니다. 하지만 관계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관계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라는 근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관계는 우리가 살다 보니 어쩌다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우리 영혼의 설계도 안에 가장 중요한 부품으로 넣어두신 것입니다. 제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본래 설계하신 관계의 아름다운 원형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1. 관계의 근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귀에서 시작된 우리

가. 혼자가 아닌 '우리'로 계시는 하나님

- (1) 성경의 첫 페이지인 창세기를 펴면 아주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기 직전에 혼잣말을 하시는데,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

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창 1:2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나흐누>라는 복수 대명사는 하나님이 결코 외로운 단독자가 아니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 (2)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영원 전부터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대화하며, 기쁨을 나누는 ‘사귄’ 속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 서는 이 신비로운 연합을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요 17:21)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즉, 관계의 출발점은 인간의 사회적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그 충만한 사랑의 사귄을 나누어 받기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창세기 1:26]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요한복음 17:21]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관계적 존재’

- (1)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첼렘>과 ‘모양’<데무트>을 따라 지음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관계 속에 계시는 분이기에, 그분을 닮은 우리 역시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연결될 때 비로소 가장 행복하고 인간다운 만족을 느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2) 여기서 '형상'<첼럼>이라는 말은 고대 사회에서 왕이 자신의 통치 구역에 세우던 동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비록 왕이 직접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그 동상을 보면 왕의 위엄과 성품을 알 수 있듯이, 인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눈에 보이게 드러내는 '살아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즐거움을 넘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비추는 거룩한 행위가 됩니다.

2. 창조의 원형: 아픔과 숨김이 없던 완벽한 살롬

가. 너와 내가 하나 되는 신비, '연합'

- (1) 죄가 들어오기 전, 인간은 하나님과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과 완벽한 '연합'<에하드>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에하드'는 단순히 숫자가 하나라는 뜻을 넘어, 서로 다른 존재들이 사랑의 띠로 꼭 맞물려 본질적으로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은 이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하나<에하드>인 여호와시니"(신 6:4)라고 표현하며 하나님의 완벽한 통일성을 묘사할 때도 사용했습니다.

[신명기 6: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 (2) 아담이 아내를 처음 보았을 때 고백한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창 2:23)는 말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관계의 고백입니다. 상대를 나와 분리된 타인이나 경쟁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를 내 몸의 일부처럼 소중히 여기고 그 기쁨과 아픔을 고스란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상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신 관계의 원형입니다. 주님은 이 원리를 확인하시며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찌니라"(창 2:24, 마 19:6)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3]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창세기 2:24]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찌로다

[마태복음 19:6]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찌니라

나. 수치심과 두려움이 없는 투명한 신뢰

- (1) 창세기 2장 25절에는 관계의 절정을 보여주는 구절이 나옵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지금의 우리는 나의 약점이 보이면 공격당할까 봐, 혹은 거절당할까 봐 가면을 쓰고 자기를 꼼꼼

[창세기 2:25]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숨기며 삽니다. 하지만 처음의 관계는 가릴 것도,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는 '완벽한 정서적 안전지대'였습니다.

- (2) 상대방이 나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받아줄 것이라는 100%의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비난이나 정죄가 끼어들 틈이 없는 곳에서는 상처받을 것에 대한 공포가 없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요일 4:18)라는 말씀처럼, 완전한 사랑만이 존재하던 그 시절에는 오직 투명한 소통과 깊은 안식만이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4:18]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3. 구속사적 진리: 모든 관계 회복의 출발점

가. 하나님과의 수직적 질서가 먼저입니다

- (1) 성경은 우리가 겪는 모든 관계의 뒤틀림이 사실은 '뿌리의 문제'라고 진단합니다. 나무가 땅에서 뽑히면 잎사귀가 아무리 노력해도 시들 수밖에 없듯이, 우리 인간관계의 갈등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시편 기자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찌어다 그는 우

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시 100:3)라고 고백했듯이,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 (2) 그러므로 관계 치유의 진정한 시작은 대화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수직적 회복'에 있습니다.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공급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구걸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을 흘려보내는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00:3]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찌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요한복음 15: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 상대방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기

- (1) 이제 우리는 내 곁의 사람을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아가 아니라, '나와 똑같이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바라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빌 2:3)라고 권면한 이유는, 그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의 가치가 존

[빌립보서 2:3]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엄하기 때문입니다.

- (2) 관계 회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바꾸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소중한 지체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용납하는 과정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롬 15:7)는 말씀처럼, 주님이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셨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서로를 '용납' <프로슬람바노>하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로마서 15:7]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마음을 나누는 질문과 실천

1. 나를 돌아보는 시간:

평소에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을 '하나님의 소중한 형상'으로 존중하고 있나요? 혹시 나의 유익이나 편리함을 위해 사람들을 도구처럼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2. 사랑의 한 걸음:

오늘 만나는 사람 중 한 명을 정해서, 그 사람의 장점이나 능력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하

나님의 작품임을 마음속으로 인정하며 축복
해 보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주세요."

3. 관계의 신호등 확인: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기도
가 짧아지거나 감사가 사라질 때), 내 곁에 있
는 사람들에게 대하는 나의 말투나 인내심이
어떻게 변하는지 구체적으로 관찰하고 기록
해 봅시다.





2 장

/

죄로 인한 관계 파괴

제 2 장 죄로 인한 관계 파괴

도입내용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완벽한 관계의 정원(에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실수를 넘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반역이었으며, 그 결과로 인간은 모든 관계에서 단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죄가 어떻게 우리의 관계를 파괴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소외와 갈등의 뿌리가 무엇인지 깊이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1. 근원적 관계의 파괴: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인간

가. 낯설어진 하나님의 음성

- (1) 불순종 직후,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첫 번째 변화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창 3:8)는 말씀처럼, 가장 기쁜

[창세기 3:8]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소통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는
피하고 싶은 공포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 (2)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대한 '담'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으로 "네가 어디 있느냐"(창 3:9)라고 부르시며 관계의 자리를 찾으시지만, 인간은 자기 죄의 수치심 때문에 스스로 관계의 문을 닫아걸었습니다. 모든 관계 갈등의 깊은 곳에는 이처럼 '하나님을 피하려는 영적 본능'이 숨어 있습니다.

[창세기 3:9] 가라사대
네가 어디 있느냐

나. 두려움과 자기 방어의 시작

- (1) 아담은 숨은 이유에 대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창 3:10)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신뢰가 깨어지자, 인간의 내면에는 전에 없던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 (2) 이 두려움은 나를 보호하려는 '자기 방어' 기제를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솔직하지 못한 인간은, 이제 사람 앞에서도 자신을 포장하고 방어하느라 진실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고립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10] 내가 벗었
으므로 두려워하여 숨
었나이다

2. 수평적 관계의 전략: 타자를 향한 정죄와 책임 전매

가. '한 몸'에서 '타인'으로

- (1)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마자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즉시 무너졌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향해 "내 뼈 중의 뼈"라고 찬송했었으나, 죄가 들어온 후에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창 3:12)라고 말하며 모든 책임을 전가합니다.

[창세기 3:12]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 (2) 여기서 아담은 하와뿐만 아니라 그녀를 주신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나의 소중한 연합의 대상이 아니라, 내 잘못을 뒤집어씌울 '대상'이자 '타인'으로 전략시킨 것입니다.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은 사라지고, 오직 '나'의 생존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로 변질되었습니다.

나. 관계 속에 침투한 '강포'의 원리

- (1) 죄의 영향력은 아담과 하와를 넘어 가인과 아

벨의 형제 살해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성경은 당시 세상을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가득한지라"(창 6:11)고 묘사합니다. 여기서 '강포' <하마스>는 단순한 신체적 폭력을 넘어, 타인의 권리와 존재를 무시하고 파괴하는 도덕적 부패와 관계적 폭력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6:11]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가득한지라

- (2) '돕는 배필'로 지음 받은 타자는 이제 나의 수치를 드러내는 위협적인 존재나, 내가 밟고 올라서야 할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시기, 질투, 비난, 그리고 타인을 향한 무관심은 모두 이 '하마스'의 원리가 우리 관계 속에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3. 구속사적 진리: 관계의 질병을 직시하기

가. 수치심과 가면의 문화

- (1) 죄는 우리에게 '수치심'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화과나무 앞으로 자신을 가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학벌, 돈, 외모, 사회적 지위라는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리고 사람들을 대합니다. 본래의 벌거벗은 진실한

모습으로는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 (2) 하지만 이런 인위적인 가림막은 진정한 소통
을 가로막습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느끼는 답
답함은 서로가 쓴 '가면'과 '가면'이 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으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
를 건져내랴"(롬 7:24)라고 탄식하며, 우리 힘
으로는 이 뒤틀린 관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롬 7:24]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으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
를 건져내랴

나. 깨어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찾아오심

- (1) 관계가 파괴되어 절망 중에 있는 우리에게 소
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네가 어
디 있느냐"고 물으시며 찾아오셨기 때문입니
다. 인간은 숨었으나 하나님은 찾으셨고, 인간
은 무화과 잎을 엮었으나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창 3:21).

[창세기 3:21] 여호와 하
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
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
어 입히시니라

- (2)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엮은 무화과 잎 대신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
히시니라"(창 3:21).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
해서는 희생 제물의 피 흘림이 반드시 필요했

습니다. 이는 장차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합니다. 우리의 관계 치유는 나의 노력으로 무화과 잎을 더 촘촘히 엮는 자구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지어주신 '은혜의 옷'을 입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마음을 나누는 질문과 실천

1. 나를 돌아보는 시간

갈등이 생길 때, 나는 아담처럼 "그 사람 때문이야"라고 책임을 돌리는 편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편인가요?

2. 수치심과 가림막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무화과 잎(가면)'은 무엇인가요? (예: 아는 척하기, 강한 척하기, 착한 사람 코스프레 등)

3. 회복을 위한 기도:

“주님, 죄로 인해 비틀린 나의 시선을 고쳐주소서.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피하거나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사랑 안에서 다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소서.”





3 장

/

그리스도로 인한 관계 회복

제 3 장 그리스도로 인한 관계 회복

도입내용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담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화법을 배우고 노력을 해도 관계의 근본적인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영혼의 밑바닥에 '죄'라는 독소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3장에서는 이 절망적인 단절의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분이 어떻게 자신의 몸을 던져 막힌 담을 허무셨는지, 그리고 그 '화목'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관계 회복의 유일한 기초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1. 막힌 담을 허무는 유일한 길: 화목제물 그리스도

가.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 (1) 성경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화목제물' <hilassterion>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롬 3:25)라는 말씀에서 'hilassteri

[로마서 3:25]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온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가
라앉히고, 깨어진 관계를 다시 잇는 화해의 도
구를 의미합니다.

- (2)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드려 일시적인 용
서를 구했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다리가 되
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
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
다. 이처럼 관계 회복의 주도권은 언제나 '사
랑하는 마음'을 먼저 품은 이에게 있습니다.

나.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신 화평의 왕

- (1)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
힌 담을 허시고"(엡 2:14)라고 고백합니다. 여
기서 '막힌 담'은 죄로 인해 소통이 끊기고 서
로를 적대시하던 영적, 정서적 장벽을 의미합
니다.

- (2)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담을 무
너뜨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화해하는
법을 강의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화평의 제

[엡 2:14] 그는 우리의 화
평이신지라 둘로 하나
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물이 되어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셨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사람 사이의 담을 허물 수 있는 하늘의 용기를 얻게 됩니다.

2. 수직적 회복의 우선순위: 하나님과의 화목

가. 하나님과의 평화가 먼저입니다

- (1)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꾸만 걸려 넘어지는 이유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로마서 5:10)이라고 말하며, 우리의 첫 번째 과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정상화임을 강조합니다.

- (2) 하나님과 화목해진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정죄’ 아래 있지 않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용납하셨다는 확신이 들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목매지 않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내면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진

[로마서 5:10]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심으로 품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담력

- (1)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이제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얻는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히 4:16).

- (2) 관계의 현장에서 상처받고 지칠 때마다 우리가 달려갈 곳은 상대방과의 끝없는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입니다. 거기서 주님의 긍휼을 경험할 때, 우리는 뾰족하게 날아서 있던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사람을 향해 고개를 돌릴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히브리서 4:16]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얻는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3. 구속사적 진리: 용납의 원리와 새로운 정체성

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 같이

- (1) 관계 회복의 가장 강력한 원리는 '용납'입니다. 바울은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프로슬람바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롬 15:7)고 권면합니다. ‘프로슬람바노’는 상대방을 자신의 곁으로 가까이 끌어당겨 동반자로 삼는 적극적인 영접을 뜻합니다.

[로마서 15:7] 이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 (2) 주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받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허물 많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이 ‘수직적 용납’을 경험한 성도는 이제 ‘수평적 용납’을 해야 하는 거룩한 당위성을 가집니다. 상대방이 변해야만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받아주셨기에 나도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 십자가 아래에서 발견하는 ‘우리’

- (1) 십자가는 나를 높이고 타인을 깎아내리려는 교만을 못 박는 장소입니다. 십자가 아래에 서면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롬 3:9)는 말씀처럼, 우리 중 누구도 타인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로마서 3:9]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 (2) 이런 평등한 겸손이 회복될 때, 관계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낫다는 교만을 버리고, 함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형제와 자매'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 관계가 싹트게 됩니다.

마음을 나누는 질문과 실천

1. 나를 돌아보는 시간: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길 때, 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위로를 구하나요, 아니면 내 힘으로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이기려고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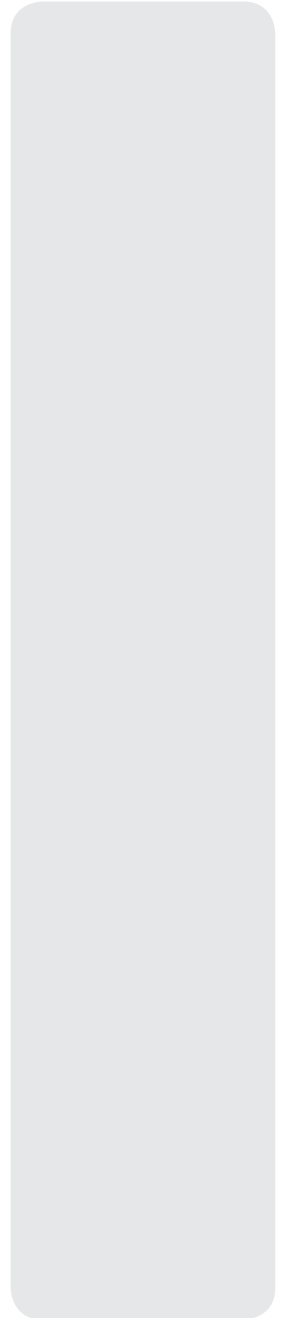
2. 용납의 연습:

최근에 나를 실망하게 했거나 관계가 서먹해진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주님이 나를 '용납' <프로슬람바노> 해주셨던 순간을 묵상하며, 그 사람을 향해 닫았던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어보기로 결단해 봅시다.

3. 화평의 한마디:

이번 주에는 관계가 불편한 사람에게 "미안해요" 또는 "당신을 존중합니다"라는 화평의 말을 건네보세요. 내 안의 '막힌 담'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허무는 실천을 시작해 봅시다.







4 장

/

용서의 효력과 관계 치유

제 4 장 용서의 효력과 관계 치유

도입내용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마음속에 '쓴 뿌리'를 품게 됩니다. 그 뿌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자라나 우리 영혼을 갉아먹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마저 오염시킵니다. 많은 이들이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어? 절대로 용서 못 해!"라고 외치지만, 성경은 용서가 상대방을 위한 선심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혼이 살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가르칩니다. 제4장에서는 관계 치유의 가장 강력한 열쇠인 '용서'의 참된 의미를 배우고, 나를 옥죄던 미움의 사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길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1. 용서의 진정한 의미: 빛을 탕감하고 멀리 보내기

가. 묶인 것을 풀어주는 '사함'의 은혜

- (1) 성경에서 용서한다는 단어는 '사하다' <아피에 마>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빛을 면제해준다', '멀리 던져 버린다' 혹은 '풀어준다'라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마

음의 감옥에 가두고 계속해서 그 값을 받아내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마 6:12)라고 기도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 (2) 용서는 가해자가 충분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지은 죄의 빚을 내가 대신 떠안고, 그를 향한 심판의 권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의 감옥 문을 열어 그 사람을 밖으로 보내 주고, 동시에 나 자신도 그 미움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사건이 바로 용서입니다.

나. 일만 달란트의 빚을 기억하십시오

- (1) 예수님은 용서의 근거를 ‘일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 설명하셨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을 탕감받은 종이 자신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용서하지 못했을 때, 주님은 큰 슬픔과 분노를 나타내셨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마 18:33).

[마태복음 6:12]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마태복음 18:33]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2)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내 의지나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기억하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내 안의 미움이 너무 커서 용서가 안 될 때, 우리는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를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2. 용서의 과정: 감정을 넘어 믿음의 결단으로

가.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1) 많은 사람이 "아직 미운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서 용서할 수 없어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적 용서는 감정이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내리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베드로가 "일곱 번까지 용서할까요?"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일곱 번 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찌니라"(마 18:22)고 말씀하셨습니다.

(2) 이는 감정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용서하기로 작정하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8:22] 일곱 번 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찌니라

우리가 먼저 용서를 '선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상처 난 감정도 서서히 어루만지시고 치유해주시는 순서로 일어납니다.

나. 쓴 뿌리를 제거하는 영적 싸움

- (1) 히브리서 기자는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지 않게 하며"(히 12:15)라고 경고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독초처럼 자라나서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히브리서 12:15]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지 않게 하며

- (2) 내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는 미움과 복수심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놓으십시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훼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엡 4:31)라는 말씀처럼, 용서는 내 영혼을 더럽히는 쓰레기를 밖으로 내다 버리는 영적 청소와 같습니다.

[에베소서 4:31]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훼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 구속사적 진리: 용서가 가져오는 관계의 기적

가. 원수를 사랑하는 십자가의 능력

(1) 세상의 논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논리는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누가복음 23:34)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34]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2) 이 기도는 우리 관계 회복의 궁극적인 모델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할 때라도, 우리는 주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 그들의 영혼을 의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원수 같은 관계가 형제의 관계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기

(1) 사도 바울은 관계 치유의 구체적인 태도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엡 4:32).

[에베소서 4:32]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2)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상대방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보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죄에 취약하고, 상처가 많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는 순간, 정죄의 칼날은 무뎌지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묶여 있음을 깨닫는 것이 모든 수평적 치유의 완성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질문과 실천

1. 나를 돌아보는 시간

지금 내 마음의 감옥에 가두어두고 매일 미움의 빔 독촉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을 놓아주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용서의 선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을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를 용서하셨기에, 저도 오늘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5 장

/

성령과의 관계 시작

제 5 장 성령과의 관계 시작

도입내용

관계의 치유가 마음의 쓴 뿌리를 뽑아내는 '용서'에서 시작된다면, 그 빈 자리를 아름답게 채워가는 과정은 바로 '언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는 깨어진 관계를 다시 붙이는 접착제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치유되던 상처를 다시 덧나게 하는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영성의 문제라고 가르칩니다. 제5장에서는 우리의 입술을 성령님의 통제 아래 두고, 상대방의 영혼을 살리는 건강한 대화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배워보겠습니다.

1. 언어의 권세와 성령의 통제

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습니다

(1) 성경은 말의 힘을 매우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잠 18:21)는 말씀처럼, 우리가 내뱉는 말은 상대방의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강

[잠언 18:21]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력한 힘을 가집니다. 관계의 성패는 우리가 대화의 현장에서 이 '혀'<라손>를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 (2) 야고보서 기자는 인간의 힘으로는 혀를 길들일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야고보서 3:8).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실합니다. 내 감정이 앞설 때 입술을 제어하고, 내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말을 선택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야고보서 3:8]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나. 은혜를 끼치는 입술

- (1) 사도 바울은 우리 대화의 기준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엡 4:29). 여기서 '은혜를 끼친다'는 것은 내 말이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달하는 통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4:29]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 (2)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이 말이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가, 아니면 나의 화풀이를 하는 것인가?"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파수꾼이 되어주실 때, 우리의 언어는 비로소 치유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됩니다.

2. 세워주는 대화: 덕을 세우는 원리

가. 건물을 짓듯이 관계를 세우는 '덕'

(1) 성경은 '덕'〈오이코도메〉을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이 단어는 본래 '집을 짓다' 혹은 '건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 회복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이벤트가 아니라, 벽돌을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쌓아 올리는 건축 과정과 같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따뜻한 격려와 진실한 칭찬 한마디가 깨어진 관계라는 무너진 담벼락을 다시 세우는 귀한 벽돌이 됩니다.

(2) 반대로 비난이나 험담은 공들여 세운 집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파괴적인 행위입니다. "무익한 말을 버리고 오직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하라"는 가르침에 따라, 우리는 상대방의 허물

을 들춰내기보다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가능성을 찾아내어 복돋아 주는 '창조적 대화'를 실천해야 합니다.

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기

- (1)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 무조건 참거나 아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엡 4:15)고 말씀합니다. 참된 것(진실)을 말하되, 반드시 '사랑 안에서' 말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사랑이 없는 진실은 상대방에게 비수가 되고, 진실이 없는 사랑은 비겁한 타협이 됩니다.

- (2) 상대방에게 권면이나 쓴소리를 해야 할 때도 "나는 당신이 잘되기를 바라고 사랑합니다"라는 진심이 먼저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대화가 상처가 되지 않고, 함께 성숙해가는 신앙의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엡4:15]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3. 구속사적 진리: 새 인격에 걸맞은 새 언어

가.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1)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가장 먼저 눈에 띄게 변해야 할 부분이 바로 우리의 언어 습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엡 4:25)는 말씀처럼, 정직한 대화는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라는 고백은 내 곁의 사람이 단순히 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나를 이루는 소중한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4:25]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2) 내 몸의 신경계가 뇌에 거짓 정보를 전달하면 몸 전체가 위기에 빠지듯, 관계 속에서의 거짓은 공동체의 근간을 흔듭니다. "무익한 말을 버리고 오직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하라"는 가르침은 우리가 서로 연결된 운명 공동체임을 전제로 합니다. 내가 먼저 가면을 벗고 진실하게 다가갈 때, 상대방도 비로소 마음의 빗장을 풀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귄 속으로 들어 오게 됩니다.

나.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

(1) 성경적인 대화의 황금률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야 1:19)는 것입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소리를 듣는 행위를 넘어,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한다는 가장 확실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상대의 말을 충분히 경청할 때, 비로소 그 영혼 깊숙이 자리 잡은 아픔이 보이고 그를 향한 주님의 눈물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 (2)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셨듯이, 우리도 상대방의 말을 가로막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경청의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울 수 있습니다(약 3:2). 혀는 작은 지체로되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고 온 산을 태우는 작은 불씨와 같기에 (약 3:4-5), 우리는 늘 성령님의 다스림을 구해야 합니다.

- (3)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모순을 버리고(약 3:10),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잠 15:1)는 말씀을 기억하며 부드러운 언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때의 대화는 단순히 정보를

[야고보서 1:19]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 3:2]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울 수 있으리라

[야고보서 3:4-5]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야고보서 3:10]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데도 내 형제들이 이것을 마땅치 아니하니라

[잠언 15:1]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주고받는 수준을 넘어, 서로의 영혼이 만나고 치유되는 거룩한 예배가 됩니다. 우리의 혀가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골 4:6) 지혜롭게 사용되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될 때, 깨어진 관계는 비로소 하나님의 평강 안으로 온전히 들어 오게 됩니다.

[골로새서 4:6]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마음을 나누는 질문과 실천

1. 나를 돌아보는 시간:

나의 평소 말버릇 중에서 관계를 무너뜨리는 '더러운 말(비난, 불평, 험담 등)'은 무엇인가요? 성령님께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도록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2. 경청의 연습:

이번 주에는 누군가와 대화할 때, 내 주장을 먼저 하기보다 상대방의 말을 5분 동안 끝까지 끊지 않고 들어보는 '경청 훈련'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랬군요, 참 힘들었겠네요"라고 마음으로 공감해 주세요.

3. 축복의 언어 벽돌:





6 장

/

주변 사람과의 관계 회복

제 6 장 주변 사람과의 관계 회복

도입내용

관계 회복의 긴 여정은 나 개인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각의 파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하나의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고 서로를 용납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인 '샬롬'을 함께 누리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성도의 관계 회복이 어떻게 공동체의 연합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장차 맞이할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된 관계는 어떤 모습일지 소망하며 훈련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 평강의 기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가. 이미 주신 하나됨을 '지키는' 사명

- (1)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고 속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엡 4:3)고 명령하십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처럼, 연합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

[에베소서 4:3]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완성해 놓으신 선물입니다.

- (2) 관계의 치유는 새로운 관계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가려졌던 '성령의 하나 됨'을 다시 발견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교만과 시기심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평안의 줄로 서로를 붙들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살아가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 13:35)는 말씀처럼, 우리의 화목한 관계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요한복음 13: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나. 몸의 지체로서의 유기적 관계

- (1) 사도 바울은 공동체를 사람의 '몸'에 비유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고전 12:12). 이 비유 속에서 우리는 관계의 신비로운 원리를 발견합니다. 눈이 손더러 "너는 필요 없다"라고 할 수 없듯이, 공동체 안에서 소중하지 않은 관계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12]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 (2) 오히려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 주며"(고전 12:23)라는 말씀처럼, 관계의 회복은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고 연약한 지체를 먼저 돌아보는 것에서 완성됩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 유기적인 사랑이 흐를 때, 우리 안의 상처는 공동체의 온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치유됩니다.

[고린도전서 12:23]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 주며

2. 관계의 완성: 샬롬의 실현

가. 모든 관계의 온전함 '샬롬'

- (1) 성경이 말하는 '평강'<샬롬>은 단순히 싸움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샬롬'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모든 관계가 어긋남 없이 제자리를 찾고, 충만하게 결합되어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는 창조 때의 원형적 관계가 구속의 은혜를 통해 재현되는 상태입니다.
- (2) 우리는 서로에게 '샬롬'을 빌어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히 10:24)라는 말씀처럼, 관계 회복의 목적은 상대방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샬롬’을 누리도록 돕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먼저 화평을 만드는 자<에이레노포 이오스>가 되어 다가갈 때, 우리 사이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히브리어 10:24] 너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나. 다양성 속의 통일성

- (1)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모두가 똑같아지는 곳이 아닙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고전 12:4-5)라는 말씀처럼, 서로 다른 성격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머리에 연결되어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 (2) 관계 치유의 성숙함은 상대방을 나처럼 바꾸려 하지 않고, 그의 ‘다름’을 하나님의 ‘다양성’으로 인정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각기 다른 소리를 내는 악기들이 모여 하나의 아름다운 교향곡을 연주하듯, 서로 다른 우리가 모여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공동체적 관계 회복의 꽃입니다.

[고린도전서 12:4-5]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3. 구속사적 진리: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

가. 눈물과 이별이 없는 영원한 사귄

(1) 우리의 관계 회복 훈련은 장차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날의 관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계 21:4). 죄로 인해 발생했던 모든 오해, 시기, 분노, 외로움이 사라지고 오직 완전한 사랑의 소통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2)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것이며, 우리 사이의 모든 가면과 무화과 잎은 벗겨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전 13:12). 이 영광스러운 관계의 완성을 소망하며, 우리는 오늘도 내 결의 지체를 영원히 함께 거할 소중한 가족으로 대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고린도전서 13:12]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나. 관계 회복의 대장정을 마치며

(1) 6장까지의 훈련을 통해 우리는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죄로 인해 깨어졌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복되었음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과제는 이 땅에서 그 회복된 관계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라"(갈 5:13)는 말씀을 붙잡고, 내가 먼저 낮아져 발을 씻겨주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2)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골 3:14)는 약속을 의지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음을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골 3:15).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능히 상대방의 모든 허물을 덮고 깨어진 관계를 화목의 기적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3) 우리의 시선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향

[갈라디아서 5:13]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라

[골 3:14]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골 3:15]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해야 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계 22:3-4)라는 말씀은 우리 관계의 최종적인 완성형을 보여줍니다. 생명수 강이 흐르고 만국을 소성하기 위한 생명나무 잎사귀가 가득한 그곳(계 22:1-2)에서 누릴 완벽한 사움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살롬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모든 만남 속에 충만하여, 어둠이 없고 주 하나님이 친히 비추시는 영광스러운 관계의 축복을 미리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계 22:3]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계 22:4]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계 22:1] 또 저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 부터 나서
[계 22:2]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마음을 나누는 질문과 실천

1. 나를 돌아보는 시간

나는 우리 공동체(가족, 구역, 교회)에서 '평안의 매는 줄' 역할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나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내가 오늘 포기해야 할 나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2. 공동체적 실천:

우리 주변에 관계의 단절로 인해 홀로 아파하

고 있는 지체가 있나요? 그분에게 먼저 다가가 따뜻한 차 한 잔을 권하거나, “우리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을 전해보세요.

3. 소망의 기도:

“주님, 깨어진 이 세상의 관계 속에서도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살롬을 꿈꾸게 하소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의 상처를 싸매주며,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거룩한 사귄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7 장

/

관계회복을 위한 증인의 삶

제 7 장 관계회복을 위한 증인의 삶

도입내용

이제 우리는 관계의 기원부터 회복의 실제적인 방법들까지 긴 여정을 함께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훈련의 종착역은 교실이나 교재의 마지막 페이지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가정, 일터, 그리고 이웃과의 만남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치유하신 후, 우리를 '관계의 치유자'로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마지막 제7장에서는 우리가 받은 화목의 은혜를 어떻게 세상으로 흘려보낼 것인지, 즉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영광과 실천에 대해 배우며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 부르심의 목적: 화목하게 하는 직책

가.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임무

- (1)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단순히 개인의 천국행에 있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고후 5:18)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고린도후서 5:18]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화해의 대사'로 부름받았습니다.

- (2) 직책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맡기신 '업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그치고 화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성도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카탈랏소>을 경험했기에, 이제는 갈등의 현장에서 화평의 씨앗을 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

- (1)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고후 5:20)라고 선언합니다. '사신'은 왕의 권위를 가지고 다른 나라에 파견된 특사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동료들을 대하고, 시장에서 상인을 대하며, 결혼하는 이웃을 대할 때 여러분은 단순히 '나'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서 있는 것입니다.

- (2) 우리의 인격과 언어, 그리고 관계를 맺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읽는 '살아있는 성경'이 됩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와 용납의

[고린도후서 5:20]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은혜를 삶으로 보여줄 때, 세상은 비로소 복음의 실제적인 능력을 목격하게 됩니다.

2. 증인의 삶: 세상 속에서 실천하는 관계의 치유

가. 낮은 곳으로 흐르는 사랑

(1) 관계의 증인은 높은 곳에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마 20:28)라고 말씀하시며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타인을 지배하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계는 먼저 낮아져 발을 씻겨주는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2) 일터에서 남들이 꺼리는 일을 먼저 맡거나, 갈등의 중심에서 먼저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는 용기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증인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낮아짐’이 있을 때, 견고하던 미움의 담벼락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0:28]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 비판 대신 중보의 자리에 서기

- (1) 증인의 삶은 타인의 허물을 비판하기보다 그를 위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약 5:16)는 말씀처럼, 관계의 회복은 중보 기도의 현장에서 완성됩니다.

- (2) 누군가와 관계가 막혔을 때,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해 보십시오. 기도는 우리가 사람을 향해 품었던 날 선 감정을 녹여내고, 하나님의 긍휼한 시선을 우리에게 이식해 줍니다. 내가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상대방의 마음도 만지기 시작하십니다.

[야고보서 5:16]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3. 구속사적 진리: 회복의 통로가 되는 삶

가. 복의 근원으로 사는 삶

- (1)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찌라"(창 12:2)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축복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관계의 치유를 경험했다면, 이제

[창세기 12:2] 너는 복의 근원이 될찌라

우리 주변의 모든 만남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 (2)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당신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당신과 대화하면 소망이 생깁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구속사적 회복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어두운 관계 속에 빛을 비추고 부패한 관계 속에 맛을 내는 화목의 주인공이 된다는 뜻입니다.

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소망의 행진

- (1) 우리의 관계 회복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다시 넘어지고 상처를 주고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빌 1:6)는 약속이 있습니다.
- (2) 관계의 치유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평생의 여정입니다. 실수해도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거절당해도 다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손을 내미는 그 걸음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일구는 거룩한 행진입니다. 이제 이

[빌립보서 1:6]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교재를 덮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화목케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을 나누는 질문과 실천

1. 나를 파송하기:

내가 오늘 가장 먼저 '화목의 대사'로 파견되어야 할 장소는 어디이며, 누구를 만나야 하나요?

2. 실천의 다짐:

7주간의 훈련을 마치며, 내가 평생 붙잡고 살아갈 관계의 핵심 성구 하나를 정해보고 그 의미를 나누어 봅시다.

3. 축복의 기도:

"주님, 나를 치유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만 편안한 삶을 넘어, 상처 입은 이 세상에 화목의 소식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내 곁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관계회복반 교재

초판 발행 2026. 1. 5
지 은 이 데이빗리 목사
펴 낸 이 홀리타임즈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75-1
전 화 010-7348-2300(이안나목사)
홈 페이지 www.RevivalForChurch.com
이 메 일 inourlove@gmail.com

* 이 교재는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에 소속된 교회에서 성경공부/훈련을 위해 제작된 교재입니다. 교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은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에 가입하시고 최우수회원이 되셔야 합니다.

BEST SOLUTION FOR SUCCESS LIFE

초강추!
CHANCE

참영성 참목회자 양성기관

World Spiritual Leadership Seminary

국제 신학교

결심했어!
국제신학교에서
학습할거야~



강력한 능력으로 강력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까?
영성과 신학을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면 학비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역학 과정

사역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사역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목회학 과정

목회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목회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최고의 실력과 영성 능력을 겸비한 훈련과정

국제신학교는 성경과 성령 두 날개를 달고서 보다 강력한 목회를 할 수 있는 목회자와 사역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국제신학교를 통해 당신도 강력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셔서 세계 최상의 신학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제신학교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51길 25
www.WSLseminary.com / 010-3280-7689



데이빗리 학장

University of Arizona 석사
University of Hartford 석사
Gordon-Conwell 신학교 목회학석사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대표